



메리 크리스마스. 몽골에서
뭉흐목사 가족이 새해
인사드립니다.

2016년은 주님의 은혜로
사역의 열매가 충만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은 1월의 제일 추운 날 눈 속에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볼강 아이막 사이항 솜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사진에 있는 유목민
가족이 구원을 받고 가정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분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흰색 차 탄
사람들이 와서 아내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준답니다. 그 다음날 우리는
물 마시기 위해서 그 집에 들렸더니
하나님이 미리 마음을 준비시키신 그
분이 주님을 바로 영접했습니다.



고비 사막에 있는 몽골교회
모습입니다. 몽골의 500 개의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의 절반이
목회자가 없고 평신도 지도자가
섬기고 있습니다.

2016년은 선교와 교회 개척으로 충만한 한 해였습니다. 헨티 아이막에 새시작, 새삶, 새땅이라는 3 교회가 있었다면 4 번째 교회는 아무 교회 없는 바양 어워라는 솜(면)에 시작했습니다. 새생명 교회는 2017년에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몽골에 교회가 없는 마을이 많습니다. 몽골의 솜(면, 행정 단위)의 절반에 교회가 없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러스 등 미국에 있는 몽골 교회들을 방문하여 성경 키 교육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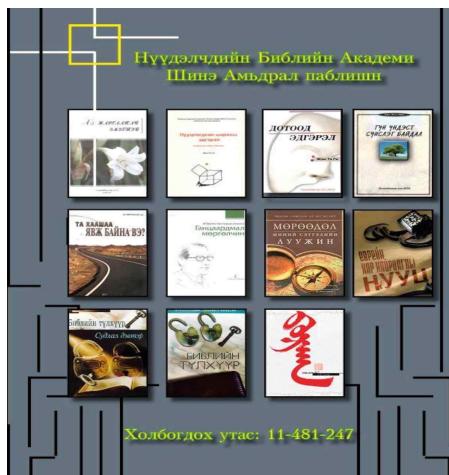




유목민 성경 아카데미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총 80 과
성경공부를 준비해서 녹화가
끝났고, 토요일마다 방송을 통해서
몽골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들에게 필요한
성경 공부 교재와 시디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새생명
출판사에서 몽골교회들에게

필요한 여러 책을 번역하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져 목사님의
“하나님” 책을 번역하여 출판했습니다. 몽골 교회가 세워진지 20 여년 밖에
안 되어서 성경과 신학의 확고한 기초를 닦아야 할 필요가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감옥에 보냈던 사진 속 유명한 깡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새로
출판된 책을 선물했습니다.



몽골의 21 아이막을 다니면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와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움누고비 아이막 총 목회자 및 지도자 세미나입니다.



움누고비 아이막의 참기쁨 교회
성도입니다. 2년 동안 성경을 직접
필기하신 분입니다.

한국에 있는 몽골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성경의 키 세미나를 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40여 개의
몽골인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2016년에 20여 명의 성도가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새생명
교회의 젊은 가족에 20명의 어린
생명이 탄생하여 새생명교회는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새생명 교회에서 10명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2명이 졸업을 했고, 내년에 2명이 또 졸업을 합니다. 또한 1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내년에는 3명이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한
몽골의 크리스챤
의사협회를 섬기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016년에 총 5개의 아이막과 3개의 도시 교회를 방문하여 섬겼으며 5000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유목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유목민 성경아카데미의 이동교육 사역은 고비 사막과 눈에 쌓인 길들을 다니며 내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몽골의 가장 남쪽 국경부대에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부대장에게 성경을 드렸습니다. 또 한 사진은 몽골의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솜(면, 행정 단위) 교회에 가서 섬겼습니다.



곧 맞이하는 2017년에 계속해서 몽골의 21 아이막을 다니면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와 교회 부흥회, 성경 공부, 지도자 훈련, 선교와 교회 개척, 기독교 서적 번역 및 출판 등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새생명교회, 유목민성경아카데미, 새생명출판사를 위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몽골에 330개의 마을마다 복음이 전해지며 교회가 새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몽골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초원 끝까지 달려보고 싶습니다.

귀한 동역자 여러분, 몽골 선교를 위해 함께 달리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에서 뭉흐 목사 올림